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The Correlates of Coparenting: Marital Quality, Mothers' Personality, and Childrens' Initial Temperament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 인간발달학과
석 사 김 수 진
조 교 수 도 현 심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Kim, Soojin
Assistant Professor : Doh, Hyun-Si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marital quality, mothers' personality, and children's initial temperament. Subjects were 174 mothers of 4~6 year-old children, and they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coparenting, marital quality, personality, and initial temperament of their children. For mothers of both boys and girls, positive marital quality was related positively to warmth, support, and integrity coparenting and negatively to conflict coparenting. Only for mothers of girls, higher warmth and integrity coparenting was shown when they were extroverted, while those who were neurotic showed higher conflict coparenting. For mothers of boys, support coparenting was low when their sons were emotional. Mothers of girls showed lower level of warmth and integrity coparenting when their daughters were avoidant, emotional, and sensitive.

◆ 주요어: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Ⅰ. 서 론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 의해 전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영향력을 기초로 연구자들은 부-모간의 양육분담의 차원을 넘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상호 작용할 때 일관된 가치관을 갖고 서로를 지지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Grych & Fincham, 1990). 이러한 시점에서 대두된 개념이 바로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이다. 실제로, 부-모간 양육행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혼 부부들이 자녀 양육상의 문제를 겪으면서 부모의 이혼 후 양육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즉, 부모의 이혼 후에 부-모간의 양육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발달을 경험하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Belsky, Crnic, & Gable, 1995; Emery, 1988; Grych & Fincham, 1990; Maccoby, Dpner, & Mnookin, 1990).

최근 들어 부-모간 양육행동의 개념은 이혼 가족뿐 아니라 양친 가족의 경우에까지 확장되어 아동발달과 부모-자녀관계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는 데 기여했다(McHale, Rao, & Krasnow, 2000).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로서 각각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부모가 함께 아동에게 행하는 부-모간 양육행동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한다. 즉, 아동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좀 더 통합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Emery, 1988; Grych & Fincham, 199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간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모 행동이므로 일종의 양육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부-모간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쪽 부모와만 있는 상황에서도 발견된다(McHale & King, 1996).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황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가 또는 아버지와 자녀만이 함께 있을 때도 부재한 부모에 대한 반응이나 어투 등에서 부-모간 양육행동은 나타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부모는 각 개인의 특성과 선호하는 바를 서로에게 강요할 수 있고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의 상호작용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Grych & Fincham, 1990; Minuchin, 1974).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부-모간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모든 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다. McHale(1997)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부-모간 양육행동을 통합(Integrity), 비난(Reprimand), 갈등(Conflict), 그리고 훈육(Discipline)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통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고 한 가족임을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은 부모가 서로의 양육에 대해 헐뜯고 무시하는 것이며, 갈등은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가 불일치하거나 갈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훈육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함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질문지로 다른 문화권인 중국에서 조사된 결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 부-모간 양육행동은 통합, 훈육 그리고 갈등의 세 가지 요인만으로 구분되었다. 즉, 비난과 갈등은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되어졌다(McHale et al., 2000). 요약하면, 부-모간 양육행동은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서로를 한 팀으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심리 · 정서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부-모간 양육행동과 부부관계를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부-모간 양육행동은 가족 체계 안에서 부부와 아동을, 그리고 부부관계는 부부만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ohen & Weissman, 1984; Cowan & McHale, 1996; McHale, 1995). 따라서, 양자는 상호 독립적인 의미

를 갖지만, 동시에 양자 모두 부부가 포함되므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Nihira, Mink, & Meyers, 1985). 성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각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과 같이 부부관계가 좋거나 좋지 않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개인 행동은 물론, 서로가 함께 하게 될 양육행동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McHale, 1995). 부부관계의 질이 좋고,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는 통합적인 부-모간 양육행동과 서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부-모간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부간에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는 부-모간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 헐뜯는 언행을 하게 되며, 이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된다(Floyd & Zmich, 1991;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McHale, 1995; Russell & Russell, 1994). McHale(1997)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점수와 결합력, 갈등, 훈육, 그리고 비난 등의 네 개의 부-모간 양육행동의 하위요인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부-모간 양육행동에 있어 결합력과는 정적 상관으로, 갈등 및 비난과는 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인 중국의 경우에서도 지지되어졌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질이 부-모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부부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여아를 둔 부모의 통합적인 부-모간 양육행동에 문제가 있고, 남아들의 경우는 서로간의 갈등이나 비난하는 부-모간 양육행동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Hale, 1997). 또한, 부부관계가 부-모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를 둔 부모의 경우 여아를 둔 부모들에 비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Belsky, Crinic, & Gable,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관계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에 따라 그 영향력과 미치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인성 특성은 자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져, 긍정적인 인성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는 반면, 부정적인 인성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ettes, 1988; Filed, Sandberg, Garcia, Vega-Lahr, Goldstin, & Guy, 1985). 특히,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인성 특성임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인성적인 근원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른 체계가 잘못되더라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러 인성 특성 요인들 가운데 신경증과 외향성(Eysenck & Eysenck, 1975)이나 긍정적 정서성과 신경증성(Watson & Clark, 1984)은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져 온 인성 특성이다. 외향성 또는 긍정적인 정서는 따뜻한 인간관계, 애착, 사회성, 활동성 및 흥미로움을 추구하는 행동 등을 일컫는다. 반면에 신경증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적대적이고 자의식이 강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자존감이 낮은 개인적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인성 요인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요인이 양육태도나 행동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Belsky & Vondra, 1993).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안정성이 낮을수록 양육태도는 권위적이며, 사회성이 낮을수록 의존성 조장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이선주, 1985). 즉, 책임감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사색적인 인성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애정적으로 보살피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은수, 1985). 또한, 부모가 외향성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 ·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반면, 신경증성이 높으면 온정적 양육행동은 적게 보이고 거부 ·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

진 · 박성연, 199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부모의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간 양육행동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점에 근거할 때, 인성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특성 외에 아동의 특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아동 특성 변인인 아동의 초기 기질은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아동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Sanson & Rothbart, 1995). 아동은 자신의 특정한 행동 특성이나 기질 특성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 자신의 발달의 근원을 제공한다(Bates, 1987; Crockenberg, 1986; Rothbart, 1986). 아동의 초기 기질은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개의 아동마다 부모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으며(Sanson & Rothbart, 1995), 영아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절하기도 한다(Rothbart, 1989). 그러나, 아동의 기질과 부모-자녀관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이 긍정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자기 조절을 잘 할 경우는 부모도 매우 반응적이고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만(Kyrios & Prior, 1990), 까다롭고, 접근하기 힘든 영아들에게는 부모가 무반응적이고, 결핍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uss, 1981; Linn & Horowitz, 1983).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만약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에게 많은 기대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모는 까다롭고 어려운 아동에게 긍정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된다(Crockenberg, 1987). 즉, 부모는 좀 더 많이 울고 보채는 아이들의 양육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sh & Crockenberg, 1986). 분명한 것은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아동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 기질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기질이 연속적이며, 특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질 특성보다 부정적인 기질 특성이 더 지속적이라고 보고하다(Fox, 1994; Kagan, Reznick, & Snidman, 1988). 즉, 아동의 초기 기질 특성은 아동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기질이 부정적인 아동의 경우, 부-모 자녀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지대하다. 따라서, 아동의 초기 기질과 유아기의 부-모간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기질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Gordon (1983)은 2~4세의 아동이 부모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와 순한 기질의 아이간에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는 차이가 없으나,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남아들의 부모가 까다로운 여아들의 부모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지된다. 부모는 긴장을 잘 하고 적응성이 떨어지는 남아들에게 자극을 보다 많이 주고 보다 더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lein, 1984; Simpson & Stevenson-Hinde, 1985).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여아가 활동수준이 높고 반응강도가 높다면, 부모는 덜 제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규칙을 잘 지키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아의 경우 부모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숙, 1984).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많이 밝혀졌지만, 양육행동 중 한 측면인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 경우는 매우 드물다.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Patterson의 행동모델, Abidin의 초기 모델, 그리고 Belsky의 결정과정 모델들을 기초로 개발한 결과, 아동의 초기 기질은 부모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모의

양육동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1~3세의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초기 충동성이 학령전기에 부모의 불일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Block & Block, 1981). 이는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초기 연구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충분히 가정될 수 있으며, 기존의 부-모간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도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Gable, Belsky, & Crnic, 1995; Russell & Russell, 1994).

부-모간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의 대상은 영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러 발달 단계들 가운데 유아기는 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받고(신숙재, 정문자 1996),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앞으로의 아동 발달은 물론 이후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고, 아동이 주로 접하는 환경이 대부분 가정인 유아기에 부-모간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cHale, Rao, & Krasnow, 2000). Block, Block과 Morrison (1981)은 부-모간 일치되거나 불일치 되는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발달 양상이 달라지는 시기는 유치원 시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아동을 둔 어머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아동발달에 있어 주요한 부분인 부-모간 양육행동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그 개념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국외의 연구 결과들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국내의 경우와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남녀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그리고 아동의 초기 기질이 부-모간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관계의 질은 남녀 아동의 부-모간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남녀 아동의 부-모간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남녀 아동의 초기 기질은 부-모간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세 개구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학중인 4~6세 아동(평균 연령: 5.6세; 남아: 71명, 여아: 103)을 자녀로 둔 17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기의 아동들에 있어 부-모간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는 물론, 앞으로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유아기 발달의 특징상 부-모간의 관계와 부모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McHale et al., 2000), 본 연구는 이 연령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1) 부-모간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cHale(2000)이 개발한,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수정 ·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3문항 중 주관식 문항인 5문항을 분석상의 어려움으로 제외시키고 18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한 시간에 1~2번 정도'의 Likert 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McHale, 1997)에서는 가족 통합(Family Integrity), 갈등(Conflict), 비난(Reprimand), 그리고 훈육(Discipline) 등의 네 요인으로 나누었으나, 문화적인 차이와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는 척도임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문항들 가운데서 요

인 부하량이 낮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2번, 9번, 10번) 15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McHale(1997)의 요인을 근거로 각 요인명을 결정하였다(〈표 1〉). 제 1요인은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쪽 부모와만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나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부부간의 갈등을 아이에게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높은 것으로 부-모간 양육행동에서 지지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요인은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으로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서로의 양육행동과 신념 등을 따뜻하고 명백하게 표현하는가를 나타낸다. 세 번째 요인은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 부부간에 서로의 부-모간 양육행동에 대해 지지적인가를 나타낸다. 네 번째 요인은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으로서, 어머니와 아이만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족이나 함께 있지 않은 남편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나타낸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 요인은 각각 α = .79, .74, .67, 및 .84이었다.

2) 부부관계의 질 척도

부부관계의 질은 Spanier(1976)가 제작한 부부관계의 질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DAS는 부부간의 일치성(Dyadic Consensus) 13문항, 부부간의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10문항, 부부간의 결합력(Dyadic Cohesion) 5문항, 그리고 애정 표현(Affectional Expression) 4문항 등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32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부부간의 일치성은 .83, 부부간의 만족도는 .75, 부부간의 결합력은 .76, 그리고 애정 표현은 .70이었다.

〈표 1〉 부-모간 양육행동 척도의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문항번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1	아이 앞에서, 부부문제로 긴장된 대화 나눔	.75			
12	아이 앞에서, 아이의 일로 논쟁	.79			
13	아이 앞에서, 부부문제로 논쟁	.82			
17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말을 함	.56			
18	남편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말을 함	.64			
1	아이에 대한 신체적 애정표현		.54		
3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말		.79		
4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말		.79		
5	남편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		.74		
6	아이 훈육에 먼저 나서서 처리			.65	
7	아이 훈육을 남편에게 부탁			.63	
8	남편의 훈육에 간섭하지 않음			.69	
14	가족에 대해 말을 함				.78
15	아이가 남편을 떠올릴 수 있는 말을 함				.81
16	남편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함				.84
고유치		5.05	2.88	1.50	1.21
설명력(%)		16.00	8.40	28.06	6.72

주) 요인 1: 갈등적; 요인 2: 애정적; 요인 3: 지지적; 요인 4: 통합적

3) 어머니의 인성 특성 척도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ionnaire)를 번안하여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한 이현수(1985)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이용한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은 외향성(14문항) 및 신경증성(17문항) 등의 두 가지 요인으로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았다'에서 '매우 그랬다'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외향성 및 신경증성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76과 .73이었다.

4) 아동의 초기 기질 척도

아동의 초기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후 6~12개월에 아동이 보인 정서적 특성에 대하여 과거 회고식으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영아의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는 Carey와 Mcdevitt(1978)의 RITQ(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한 이미정(1998)의 조사도구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초기 기질 척도는 접근-회피성[1](9문항), 적응성(3문항), 정서성(10문항), 그리고 예민성(7문항)의 네 요인으로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았다'에서 '매우 그랬다'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접근-회피성은 .74, 적응성은 .78, 정서성은 .75, 그리고 예민성은 .60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2000년 12월에 서울시내 네 군데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둔 40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그리고 부-모간 양육행동에 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McHale, 1997)에서와 같이 예비조사 결과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상관이 높고, 아버지의 질문지 회수율이 낮음을 고려하여 본조사에서는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2월 12일~ 3월 9일에 연구자가 직접 다섯 군데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해당 아동의 담임 교사를 통해 아동편으로 전달되어 응답된 어머니용 질문지를 담임교사가 취합한 후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배부된 300부 가운데 174부가 수거되었고, 모든 자료는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간 양육행동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요인을 결정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그리고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남아의 경우 부부간의 결합력을 제외하고 일치성, 만족도, 그리고 애정 표현은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9\sim-.47$, $p<.001$). 즉, 부부간의 일치성, 만족도, 그리고 애정 표현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애정적, 지지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는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보다 유의적으로 나타났

1) 접근-회피성은 아동이 새로운 것(장소, 사람, 음식 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임을 나타난다.

〈표 2〉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남아/여아)

부부관계의 질	부-모간 양육행동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통합적
일치성	-.47***/-.23*	.07/.45***	-.09/.03	.04/.25*
만족도	-.45***/-.23*	.05/.45***	-.15/.22*	.17/.33***
결합력	.13/-.01	.10/.69***	.08/.22*	.10/.36***
애정 표현	-.39***/-.09	.11/.40***	-.10/.30**	-.07/.29**

*p<.05, **p<.01, ***p<.001

다. 부-모간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치성 및 만족도는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하게 부적 상관이 있어(r=-.23, p<.05), 부부간의 일치성과 만족도가 높을 때 부-모간 양육행동에서 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합력과 애정 표현은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치성,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은 모두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40~.69, p<.001), 일치성,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이 높을수록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 중 일치성을 제외하고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은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상관이 나타나(r=.22~30, p<.05 혹은 01), 만족도, 결합력, 애정 표현이 높을수록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도 높았다. 또한, 일치성,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 모두는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r=.25~.36, p<.05 혹은 .001), 일치성,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이 높을수록,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외향성은 부모의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5와 .29, p<.01). 즉,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을 때,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외향성은 갈등적 및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과는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30, p<.01), 신경증성이 높을 때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표 3〉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여아)

어머니의 인성 특성	부-모간 양육행동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통합적
외향성	-.11	.25**	.18	.29**
신경증성	.30**	-.14	.01	-.02

*p<.05, **p<.01

〈표 4〉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여아)

아동의 초기 기질	부-모간 양육행동			
	갈등적	애정적	지지적	통합적
접근-회피성	-.02	-.24*	-.02	-.15
적응성	.03	.03	.09	-.13
정서성	-.12	-.23*	-.26*	-.20*
예민성	-.10	-.27*	-.17	-.32**

*p<.05, **p<.01

하였다(〈표 4〉). 그 결과, 남아의 경우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만이 부모의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r=-.27, p<.05), 정서성이 높을 때 부모는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을 덜 하였다. 여아의 경우, 접근-회피성, 정서성, 그리고 예민성은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23~-.27, p<.05), 아동이 접근-회피성, 정서성, 그리고 예민성이 높을 때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정서성은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26, p<.05)를 나타내어, 정서성이 높을 때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접근-회피성, 적응성, 그리고 예민성은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과 예민성은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각각 보여(r=-.20과 -.32, p<.05 혹은 .01), 아동의 정서성과 예민성이 높을 때,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회피성과 적응성은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여아의 초기 기질 가운데 어떤 요인도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그리고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4~6세의 자녀를 둔 17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이면, 부-모간 양육행동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부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느끼고 부정적이면, 부-모간 양육행동에서 갈등이 높고 부정적인 부-모간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Burman, John, & Margolin, 1987;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Gable, Belsky, & Crnic, 1995; McHale, 1997)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부부관계가 좋고 나쁨은 당사자들의 기분과 생활 뿐 아니라 다른 가족(예: 자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간 일치성과 만족도가 높고 애정 표현이 많을 때, 부-모간 양육행동에서 갈등을 덜 경험했다. 또한, 여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간 일치성,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이 높을수록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결합력, 그리고 애정 표현이 높을 때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간 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elsky, Crinic, & Gable, 1995; McHale,1997)과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척도로 이미 조사된 바 있는 McHale(199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여아의 부모는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에 문제가 있고, 남아의 부모는 갈등이나 비난을 하는 식의 부-모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아동의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부-모간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아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외향적일수록, 애정적 및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신경증성을 가질 때, 갈등적인 부-모간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간 양육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결과가 지지하는 기존의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에서만 나타난 특징인지, 다른 일반적인 양육행동과는 달리 부-모간 양육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긍정적이라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따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어머니는 아동에게 거부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국외의 선행 연구결과(Belsky & Vondra, 1993)를 지지한다. 특히, 국내 연구 결과에서 부모가 외향성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회적 · 외향적 인성 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는 연구결과(Heinicke, Diskin, Ramsey-Klee, & Given, 1983)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부모의 인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이며, 부모의 인성이 긍정적이라면 다른 어떤 요인이 손상되더라도 능력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측면(Belsky, 1984)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 연구 결과가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결과(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같은 한 개인의 특성은 남편과 자녀와 같은 주변 사람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초기 기질이 부정적일 때, 부-모간 양육행동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초기 기질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Buss, 1981; Kyrios & Prior, 1990)을 지지한다. 아동의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아의 정서성이 높을 때, 지지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났고, 여아의 접근- 회피성, 정서성, 그리고 예민성이 높을 때, 부-모간 양육행동은 덜 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정서성이 높을 때, 부-모간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났고, 여아의 정서성이 높고 예민할 때, 부-모간 양육행동은 덜 통합적이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발견된 성차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기질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정은숙, 1984; Gordon, 1983; Klein, 1984; Simpson & Stevenson-Hinde, 1985)을 지지한다. 특히, 까다로운 기질을 갖거나 기질적으로 적응성이 떨어지는 남아들에 대해 부모가 더 반응적이고, 관심을 보이며 수용한다는 연구결과들(Klein, 1984; Simpson & Stevenson-Hinde, 1985)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질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초기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질 특성보다 부정적인 기질 특성이 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Fox, 1994; Kagan, Reznick, & Snidman, 1988)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의 초기 부정적 기질인 충동성이 학령전기에 부모의 불일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Block과 Block(1981)의 연구와 아동의 초기 기질이 부모의 양육동맹(Parenting Allia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Abidin (1990)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아동의 초기 부정적인 기질은 연속적일 수 있으며 초기의 기질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각각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간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간 양육행동은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그리고 아동의 초기 기질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간 양육행동에 관련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어, 특히, 남아의 경우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이 부-모간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결합이 더 잘되는 것이 부-모간 양육행동을 더 애정적이게 하며, 여아의 초기 예민성은 통합적인 부-모간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부-모간 양육행동을 주제로 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간과되어졌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상호적 영향을 살펴본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과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의 측면을 비롯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의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부-모간 양육행동의 개념을 우리 문화에 적용시켜보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의 부-모간 양육행동 척도(McHale et al., 2000)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그 예제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우리 문화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부-모간 양육행동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만을 이용하여 조사됨으로써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간 양육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찰법과 같은 제 3자에 의한 측정을 병행하여 부모의 지각과 실제적인 부-모간 양육행동과의 일치 여부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 외, 부-모간 양육행동은 아동기 뿐 아니라 영아기와 청소년기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간 양육행동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발달 단계의 아동들의 부-모간 양육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부-모간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아동 발달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부-모간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Howes & Markman, 1991; McHale et al., 2000)을 기반으로 부-모간 양육행동이 아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간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중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제예방에도 효과적인 방법(Block et al., 1981; Dariotis, 2001)이라는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간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접 수 일 : 2001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8월 3일

【참 고 문 헌】

신숙재 · 정문자(199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 27-42.

이선주(1985).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현진 · 박성연(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 153-169.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Bates, J.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1101-1149). New York: Wiley.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lsky, J., Crnic, K., & Gable, S. (1995). The determinants' of coparenting in families with toddler boys: spousal differences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 629-642.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Lawrence Erlbaum,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87-498.

Bettes, B.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Block, J.,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Burman, G., John, R., & Margolin, G. (1987). Effects of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 on children' 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 91-108.

Buss, D. (1981). Predicting parent-child interactions from children's activity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98-605.

Cohen, R. S., & Weissman, S. H. (1984). The parenting alliance, In R. S. Cohen, B. J. Cohler, S. H. Weissman (Eds), *Parenthood: A psychodynamic perspective* (pp.33-49). New York: Guilford Press.

Cowan, P. A., & McHale, J. (1996). Coparenting in a family context: Emerging achievements, current dilemmas, and future directions. In J. McHale & P. Cowan(Eds.), *Understanding how family-level dynamics affect children's develoopment: Studies of two-parent families* (pp. 93-106). San Francisco: Jossey-Bass

Crockenberg, S.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 giving? In J. Lerner & R.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during infancy and childhood*(pp. 53-73). San Francisco: Jossey-Bass.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Dariotis, J. (2001). The multidimensional nature and mediational role of coparenting in explaining marital quality: Adolescent outcome linkag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sota, U.S.A.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 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Eysenck, H. & Eysenck, S. (1975).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r & Stougton.

Filed, T., Sandberg, D., Garcia, R., Vega-Lahr, N., Goldstin, S., & Guy, L. (1985). Pregnancy problems, postpartum depression, and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2-1156.

Fish, M., & Crockenberg, S. (1986). Correlates and antecedents of nine-month infant behavior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 69-81.

Floyd, F., Gilliom, L., & Costigan, C.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 1461-1479.

Floyd, F., & Zmich, D.(1991). Marriage and the Parenting Partnership: Perceptions and Interactions of Parents with mentally retarde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1434-1448.

Fox, N. (1994). Dynamic cerebral processes underlying emotiong regulation In N. A. Fox(E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40,* 152-166.

Gable, S., Belsky, J., & Crnic, K. (1995). Coparenting during the child's 2nd year: a descriptive account.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3,* 609-616.

Gable, S., Crnic, K., & Belsky, J. (1994) Coparenting within the family system: Influences of children' s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3,* 380-386.

Gordon, B. (1983).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temperament and observed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3,* 153-167.

Grossman, F., Pollack, W.,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91.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einicke, D., Diskin, S., Ramsey-Klee, D., & Given, K. (1983). Prebirth parent characteristics and family development in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4,* 194-208.

Howes, P., & Markman, H. (1991).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Kagan, J., Reznick, S., & Snidman, N. (1986). Temperamental inhibition in early childhood. In R. Pol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anges*(pp. 53-65).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Klein, P. (1984). The relation of Israeli mothers toward infants in relation to infants' perceive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5,* 1212-1218.

Kyrios, M., & Prior, M. (1990). Temperament, stress and family factors in behavioral adjustment of 3-5 year-ol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 67-93.

Linn, P., & Horowitz, F. (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uring the neonatal peri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 415-427.

Maccoby, E., Dpner, C., & Mnookin, R.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41-155

McHale, J.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85-996.

McHale, J.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 183-201.

McHale, J.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11-118

McHale, J., & King, A. (1996). Supportive and critical remarks about coparental partners during parent-child play.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Nihira, K., Mink, I., & Meyers, C. (1985). Hom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slow-learning adolescents: Reciprocal relations. *Developmen-*

tal Psychology 21,784-794.

Rothbart, M. (1986).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 187-247). Chichester, England: Wiley.

Rothbart, M. (1989).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V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 187-247). Chichester, England: Wiley.

Russell, A., & Russell, G. (1994). Coparenting early school-age children: an examination of mother-father interdependence withi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757-770.

Sanson, A., & Rothbart, M. (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arc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299-320). Lawrence Erlbaum,

Simpson, A., & Stevenson-Hinde, J. (1985).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three- to four-year-old boys and girls and child-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 43-53.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15-28.

Watson, D., & Clark, L.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